



미 증시, 단기 차익실현 압박으로 하락 전환

미국 증시 리뷰

25 일(화)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심리 잔존 속 신규주택판매, 소비자 신뢰지수 등 주요 실물 및 심리지표 부진이 전거래일 강세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 욕구를 강화시키면서 하락 마감(다우 -0.24%, S&P500 -0.21%, 나스닥 -0.03%).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0.3%), 부동산(+0.3%), 커뮤니케이션(+0.1%) 등이 소폭 강세를 보였으며, 에너지(-2.0%), 유틸리티(-1.2%), 금융(-0.9%) 등이 상대적으로 약세 폭이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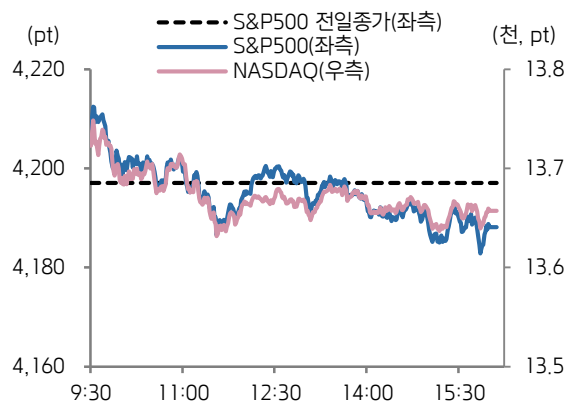
4 월 신규주택판매는 86.3 만건으로 전월(91.7 만건) 및 예상치(97.0 만건)를 모두 하회했으며, 증가율로도 전월 대비 -5.9%를 기록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수요자들이 부담이 늘어난 모습. 5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17.2로 전월(117.5) 및 예상치(119.2)보다 부진한 수준을 기록.

미국 증시 평가

최근 시장에서는 지표 부진을 “경기 과열 우려 완화, 혹은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가능성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재료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그러나 전일 발표된 주택 및 소비 지표 부진을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인 배경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리가 남아있기 때문. 3 월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가 2005 년 12 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등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4 월 신규주택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던 것으로 판단.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18.0, 예상 18.0)도 양호했으나, 관할 지역 내 기업들이 공급 부족에 따른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가격 상승 불안이 실물경제주체 사이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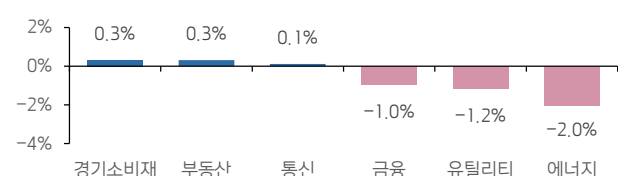
물론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향후 예정된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것이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재차 역설. 그러나 시장과 연준간의 물가 전망 및 판단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상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S&P500 일종 차트(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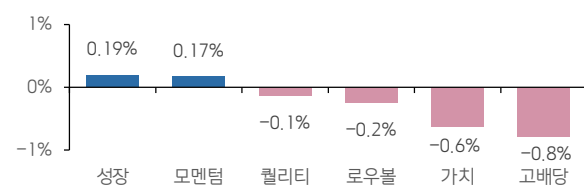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5일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5월 2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2.4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일 주가 상승폭이 컸던 경제 재개 관련 테마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2. 일본, 중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증시와의 동조화 심화 여부 3. 10 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25 일(화) 한국 증시는 전거래일 미국발 혼풍(뉴욕의 경제 정상화 기대 확산, 연준 위원의 조기 테이퍼링 일축 시사성 발언 등)에 힘입어 관련 수혜주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한 가운데, 장중에도 중국 증시 강세에 영향을 받아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 마감(코스피 +0.9%, 코스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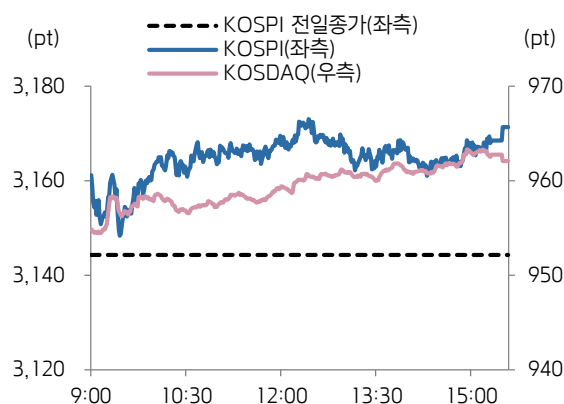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운수창고(+3.4%), 음식료(+2.7%), 기계(1.3%), 전기전자(+0.8%), 의약품(+0.7%)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임.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14 억원 순매수하며 10 거래일만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기관도 8,835 억원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상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심리에 영향을 받아 전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약보합 수준의 정체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일에는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보이긴 했으나, 현재 뚜렷한 주도주 없이 개별 재료에 따라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종목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시장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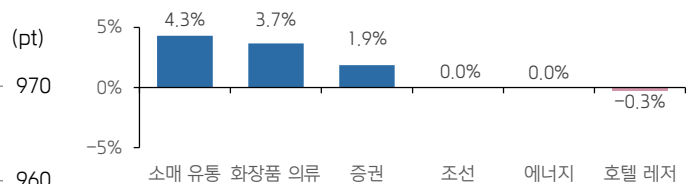
이처럼 시장 대응의 어려움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가운데, 상당기간 정체됐던 지수의 중기적인 방향성(위 or 아래)이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는 경계심리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금일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 및 미국 선물 시장 변화를 주시하면서 관망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종 차트(5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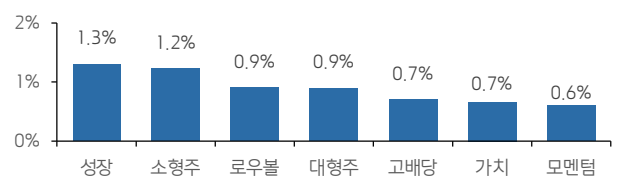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5월 25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5월 25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